

# 2026 한국경제, 스페인의 그림자를 떠올리며



**김희석**  
칼럼

십여 년 전 스페인을 여행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신대륙을 발견한 뒤 스페인은 세계의 금과 은을 빨아들이듯 끌어모았지만, 그 막대한 부를 결국 성당을 치장하고 전쟁을 치르는 데 쏟아부었다. 만약 그 자금이 산업과 기술, 시민의 삶을 키우는 데 쓰였다면 지금의 스페인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후대의 시선으로 역사를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나라가 누린 압도적 호황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스페인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옛 스페인의 영화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전기전자 등 일부 첨단 산업은 세계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수출 지표 역시 화려하다. 그러나 그 이면의 풍경은 전혀 다르다. 유통과 건설, 자영업과 부동산 등 내수 산업은 긴 침체의 타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넘나드는 초강세장을 연출하고 있지만 시장 전체가 함께 웃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와 일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지수는 치솟았지만, 상당수 종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누구의 호황인가."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가깝다.

과거 한국 사회의 논쟁은 대체로 "생산이 먼저인가, 분배가 먼저인가"에 집중돼 있었다. 지금의 논쟁은 결이 다르다. "특정 기업의 초과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성장 시대에는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분배 갈등이다.

우수한 인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기업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반면 기업의 성과가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가능했던 만큼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논쟁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를 얻은 사람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결과"라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 전체의 자원이 특정 산업에만 집중된 결과"라고 말한다. 서로의 언어가 달

라지기 시작하면 사회는 쉽게 갈라진다.

K자형 성장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 성장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중간층의 붕괴다. 상층은 더 빠르게 올라가고 하층은 베틀기조차 어려워질 때, 사회를 지탱하던 중간층은 점점 얇아진다. 중간층이 약해진 사회는 소비도 줄어든다. 공동체의식도 흔들린다. 무엇보다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진다.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나라들이 성장의 정점에서 균열을 경험했다. 부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부가 사회 전체의 미래로 연결되지 못했을 때였다. 산업의 성과가 새로운 투자와 혁신, 더 넓은 기회로 이어지지 못하면 결국 갈등만 남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가장 생산적인 논의다. 성과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미래 투자를 어디까지 우선할 것인가, 산업의 과실을 사회 전체의 기회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

먼 훗날 누군가 한국을 여행하며 2026년의 한국 경제를 돌아볼 때,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 특정 산업의 눈부신 성공만 기억하게 될지, 아니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미래를 준비했던 지혜로운 시기로 평가하게 될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vbkim11@metroseoul.co.kr

## '국민 성장'의 과제



**신하은**  
(자본시장부)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자본시장에 돈이 쌓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침체된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다. 다만 시장의 온기가 얼마나 넓게 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증시는 오르지만 실물경제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고,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실제로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모집 규모는 6000억원으로, 정부가 손실의 20%까지 원금을 보전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당 투자 한도가 최대 2억원으로 설정된 만큼 실질적으로는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가 더 적극적인 가능성이 크다. 약 20%를 서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장치가 있지만, 억 단위 목돈을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자금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이 접근하기 쉽다는 점에서 실제 혜택 범위가 기대만큼 넓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붙잡기 위한 국내시장복귀계획(RIA)의 효과도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 주고 있다. 누적 가입 계좌 수는 첫날 1만 7965좌에서 지난 15일 기준 약 23만 5000좌까지 개설되며 관심이 몰리는 듯했지만, 실질적인 잔고는 1조 9600억원으로 아직까지 실수요는 제한적이다. 매도 금액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점과 국내 주식 보유의무 기간이 약 1년

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RIA는 원·달러 환율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계획이지만, 사실상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환율도 잡지 못하고 있다. 19일에도 환율은 1490원대에 머물러 있고,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도 계속 불어나면서 이달 15일에는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물론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공공 재원이 일부 투입되거나 정책적 유인이 제공되는 만큼,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점검은 보다 촘촘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성장'이라는 이름을 내건 정책이라면 시장의 숫자뿐 아니라 국민의 체감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증시 활성화의 과실이 보다 넓게 확산될 때 정책의 설득력도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godhe@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0일 (음 4월 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몸관리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60년생** 오늘은 모든 사람이 나의 벗이 됩니다. **72년생** 모든일이 대체로 원만히 풀려 나갑니다. **84년생**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49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61년생** 사랑은 기대도 하지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뜻밖에도 다가옵니다. **73년생** 참으로 꿈같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85년생** 삶에 의지가 새롭게 솟구칩니다.



**50년생** 상하가 서로 더욱 화합하여 우의를 돈독히 합니다. **62년생** 유혹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74년생** 특히 건강에 주의하세요. **86년생** 애정운이 한층 좋습니다.



**51년생** 다소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3년생** 조용히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75년생** 조금은 의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87년생**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52년생** 어느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64년생** 나쁜 것은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6년생** 경제적 빈곤이 다소 걱정됩니다. **88년생** 양심에 기책을 느끼게 됩니다.



**53년생** 여행은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5년생**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 나갑니다. **77년생**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89년생** 일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나아가지는 마세요.



**54년생** 지병이 있다면 꾸준한 치료를 요합니다. **66년생** 흥과 길이 서로 상반되어 있습니다. **78년생** 우연한 기회에 복운을 만나 마음이 평온해 지겠습니다. **90년생** 외출을 삼가하세요.



**55년생** 각별한 주위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67년생** 물관리에 유념하세요. **79년생** 커다란 혜택을 보게 됩니다. **91년생** 허황되게 갖지 못할 물건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56년생** 생각도 못했던 좋은 선물을 받습니다. **68년생** 소박한 행복을 꿈꾼다면 매우 길하겠습니다. **80년생** 이직 생각이 당분간 하지 마세요. **92년생** 재물운이 매우 좋습니다.



**57년생** 대처를 충분히 하세요. **69년생** 문제가 생기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81년생**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조심하고 재물을 잘 감시하세요. **93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58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언가 얻기 위함입니다. **70년생**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82년생** 큰 과업에 집중하세요. **94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하지 마세요.



**59년생** 포부를 크게 가진다면 뜻대로 소원이 성취됩니다. **71년생** 손실이 따른다 해도 이것을 투자라 생각하세요. **83년생** 선물이나 용돈을 받게 됩니다. **95년생** 기쁜 좋은 날입니다.



## 김상회의四季 여래 삼불능

육신통이라는 초능력을 가지신 석가여래도 못하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가 '불능면 정업중생' (不能免 定業衆生), 즉 정해진 업은 고칠 수 없고,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신이 지은 행위는 자신이 받는 것이며 따라서 본인이 지은 업은 본인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인과(因果)의 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불능도 무연중생' (不能度 無緣衆生)으로서 인연이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제도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로서 불가에서는 부처님이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는 여덟 가지 장애라 하여 특별히 '팔난' (八難)이라고 하는데, 지옥에 떨어지고 아귀나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 외도의 수행자가 태어나는 오백 겁을 사는 천에 태어남, 외진 변방에 태어나 교화를 받지 못하는 것, 업장이 깊어 맹인이 나 귀머거리로 태어나 부처님을 만나도 볼 수 없으며 법을 설하여도 들을 수 없는 것, 등등 이렇게 붓다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는 여덟 가지 상황을 팔난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박복한 중생은 불교를 만나기 어렵다고 하겠는가. 세 번째는 '불능진 중생세계' (不能盡 衆生世界)로서 일체중생을 한꺼번에 다 제도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도과를 이루어 육신통이라는 막강한 능력이 있음에도 이렇게 못하는 세 가지는 다른 것들도 아닌 중생을 제도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만큼 세속적 가치에 함몰된 중생들은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진리를 하찮게 본다는 의미밖에 안 된다. 그렇기에 기독교 성경에서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한 것도, 중생을 모두가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진리는 구하는 자에게만 보이고 들리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진주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보석인 것이다. 세상에 못 할 것이 없는 여래라 할지라도 삼불능이 있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옆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5	4		6	2	1	3
3				9			6
6			1				2
					3		
7	9					6	5
		1					
9				5			7
5			3				9
1	3	8	7		5	2	4

7		2		8	3		1
	9				1	5	7
	3						5
5	2			4			
6			3	5	2		4
				1			2
3							5
	5	8	7				1
2			9	7		8	3

할인도서

7	2	9	6	4	9	8	8	1
6	8	9	1	6	2	7	9	9
4	1	9	2	7	9	8	6	
8	4	6	9	9	8	1	2	7
9	9	7	2	1	8	8	6	4
1	6	8	7	8	2	9	9	2
2	9	8	8	7	1	6	4	9
9	7	4	8	6	9	2	1	8
8	1	2	4	9	6	7	9	8

8	7	8	4	6	9	1	2
2	1	9	7	8	4	8	9
6	9	1	9	2	7	4	8
4	2	8	6	1	9	9	7
7	8	6	2	9	8	1	2
9	8	4	8	7	1	6	2
9	9	2	4	6	8	7	8
8	4	9	1	9	2	8	6
1	6	7	8	9	2	9	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1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1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